http://dx.doi.org/10.16874/jslckc.2021..60.006

王維 七言 古體詩 形式 分析*

안병국**

目 录

1. 序論
2. 本論
  2.1 開元上 時期
  2.2 開元下 時期 – 天寶上 時期
  2.3 至德, 乾元, 上元 時期
  2.4 未編年 時期
  2.5 歌行詩 영향 관계 규명
3. 結論

국문초록

왕유의 전체 고체시 150수 가운데 칠언 고체시 18수를 가려내어 형식과 장법을 분석하는 논문이다. 본고는 분석하는 방법으로 왕유의 18수 칠언 고체시를 4개의 시기 즉 開元上 時期, 開元下 時期 – 天寶上 時期, 至德, 乾元, 上元 時期, 未編年 時期로 나누어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각 시기별로 제작된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 매 작품의 평측, 압운, 분단을 나누어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전체 장법과 시작의 의도,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작자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왕유의 칠언 고체시는 근체시와 다른 독특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니 바로 초당체를 계승하여 4구마다 분장하면서 수구를 압운하면서 압운이 정제하고, 평측이 거의

* 이 논문은 2020년 2분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韓國放送通信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敎授

www.kci.go.kr

근체 격률에 합치하여 신식고풍에 해당한다. 작자는 초당에 비해 편폭을 짧게 조절하면서 자신의 회재불우와 건공입업의 바람이나 출사 도상의 감회 등을 서정적으로 담아 내어 초당의 부염한 풍격에서 벗어나 기세가 강하면서 다양한 서정을 담은 칠언 고체시를 만들어 내었다.

키워드: 왕유, 칠언 고체시, 신식고풍, 초당체, 성당

1. 序論

王維는 盛唐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산수자연을 지향하고 淸高沖淡한 시풍을 개척한 시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 관료가 되어 소년 시대의 杜甫나 중년의 李白과 같이 功名 출세를 추구하거나 변방으로 달려나가 建功立德을 추구하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는 일생 半官半隱 내지는 亦官亦隱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관직과 은거의 생활을 반복하였으니 이러한 태도에서 생겨난 것이 應制의 성격을 지닌 근체시나 자유로운 古體의 七言 歌行詩 형식이라고 하겠다. 1)

본고에서는 왕유의 작품 가운데 산수전원을 주제로 한 근체시에 비해 그동안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던 七言 古體詩 작품을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 시인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과 서정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춰진 근체시 보다는 자유분방한 정서를 담기에 용이한 古體 형식의 작품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왕유가 젊은 시절에 지은 고체시는 주로 懷才不遇나 建功立業의 바람을 드러낸 변새에 관한 주제나 자신의 처지를 빗댄 詠物 내지는 역사 고사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후반기에는 정치적인 굴곡이나 자신의 처지와 관련하여 제기된 感懷와 抒情이 깃든 贈答, 送別 등을 주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 2)

1) 安炳國,『唐詩史硏究』(에피스테메, 2009) 86쪽 참조
2) 趙麗萍,「王維七言歌行初探」(晉東南師范專科學校學報, 2003) 37쪽 참조

www.kci.go.kr

왕유의 칠언고체시는 章法과 格律에 있어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성당의 고체시는 初唐 무렵부터 근체시의 영향을 받아 漢代 고체시와 다른 형식으로 발전하였고 盛唐에 이르러 특히 왕유를 중심으로 한 歌行詩에 이르러 온정한 형식으로 정착되었다. 3)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왕유의 고체시(가행시)는 일명 新式古風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신식고풍은 漢代의 고시를 모방한 것이기는 하지만 각 방면에서 이전의 고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唐 이후의 시인들이 문체의 발전 과정 중에서 六朝 賦의 鋪陳 수법과 근체시 격률의 영향을 무의식중에 받아서 작법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전체 왕유의 고체시 150수 가운데 칠언 고체시 형식으로 제작된 작품을 전수 조사하여 <洛陽女兒行>, <桃源行>, <燕支行>, <少年行四首>, <從軍行>, <不遇詠>, <隴西行>, <隴頭吟> <老將行> <新秦郡松樹歌> <榆林郡歌> <同比部楊員外十五夜遊有懷靜者季>, <靑雀歌>, <夷門歌>, <同崔傅答賢弟>의 18수를 추려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五言 가행체 작품으로 <早春行>, <苦熱行>, <隴西行>시가 있지만 오언의 구식이고 가행체 특유의 문학적 성취를 엿볼 수 없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도 <登樓歌>, <送友人歸山歌二首>시는 오언이나 칠언구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楚辭體 형식이어서 역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本論

본고는 왕유의 고체시를 분석함에 있어 陳鐵民이 校注한『王維集校注』를 저본으로 하였다. 本書는 전체 12권 가운데 권1에서 권6 까지는 작자의 제작 編年 순서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즉 권1은 開元上 까지로 총 61首, 권2는 開元下 까지로 총 51수, 권3은 天寶上 까지로 총 47수, 권4는 天寶下 까지로 총 48수, 권5는 輞川之什으로 총 31수, 권7은 未編年 작품으로 총 74수를 수

3) 王力,『漢語詩律學』(上海敎育出版社, 1985) 361쪽 참조

www.kci.go.kr

록하고 있다. [4] 개원상 시기는 작자가 15세에 장안으로 올라와 王府를 출입하여 進士에 급제하고 부침을 겪다가 張九齡에 의해 발탁되기 까지의 시기로 일명 功名追求의 시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5] 개원하 시기는 右拾遺로 발탁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終南山을 왕래하며 은거하기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고, 천보상은 다시 출사하였다가 모친상을 당해 망천장에 은거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원하(開元 23년)에서 천보상(天寶 14년) 시기 까지를 제2단계로 묶어서 官僚 在職 시기로 분류하기도 한다. [6]

권5는 천보 초기에 망천 별장을 짓고 나서 安史의 亂이 일어나기 이전 까지의 작품과 망천 은거와 관계된 작품들인데, 이 기간에는 고체시 작품이 한 수도 전하지 않는다. 마지막 지덕, 건원, 상원 시기는 당 제국을 흔들었던 안사의 난이 폭발하여 고초를 겪고 풀려나고 나서 다시 잠시 관직에 몸을 담았다가 사망하기 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이 기간을 제 3단계로 간주하여 후반기 참회와 속죄의 시기로 분류하기도 한다. [7] 왕유의 칠언고체시는 이상에서 보듯이 제작 시기에 따른 편년의 순서로 탐색하는 것이 시의 내용과 주제, 형식과 작법, 격률 등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다.

2.1. 開元上 時期(715-733)

왕유가 고향을 떠나 장안에 올라와 생활하던 청년 시절에 해당하며 陳鐵民이 校注한『王維集校注』를 보면 개원 시기 上編에 총 61수를 수록하고 있다. [8] 이 시기는 작자가 15세가 되던 해에 출사를 위해 고향을 떠나 장안으로 올라오는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진사에 급제하고 출사와 은거를 반복하는 가

4) 陳鐵民 校注,『王維集校注』(中華書局出版社, 1997)
5) 李容宰는「王維 시의 官과 隱의 硏究」(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56쪽에서 왕유의 일생을 크게 3단계로 나누면서 제 1단계인 武后 長安 元年에서 開元 23년 까지를 공명추구의 시기로 보았다.
6) 이용재, 앞의 책, 65쪽 참조
7) 앞의 책, 67쪽 참조
8) 진철민, 앞의 책 15쪽 참조

www.kci.go.kr

운데 洛陽을 방문하여 張九齡에게 시를 바쳐 천거를 부탁함과 동시에 崇山에 은거하기 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9) 이 기간에 지은 칠언 고체시로 <洛陽女兒行>, <桃源行>, <燕支行>, <少年行四首>, <不遇詠>시가 있다. 이상의 작품들은 모두 4구마다 換韻하면서 수구를 압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오언 고체시는 一韻到底가 많고 칠언 고체시는 환운하는 것이 정격이다. 그런데 성당의 문인 가운데 杜甫는 칠언 고체시에도 일운도저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哀王孫>, <病後過王倚飮贈歌>시는 환운하지 않으면서도 시상을 조리있게 전환하여 분단의 효과가 뚜렷하게 하였다. 10) 그러면 먼저 <洛陽女兒行>의 형식과 작법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제1단 開頭>
洛陽女兒對門居 측평측평측평평 낙양의 소녀 건너편에 사는데
才可顔容十五餘 평측평평측측평 아름다운 얼굴 대략 열 다섯 남짓
良人玉勒乘驄馬 평평측측평평측 낭군은 옥 재갈 물린 청백색 말을 타고
侍女金盤膾鯉魚 측측평평측측평 시녀는 금 쟁반에 잉어를 회쳐 올리네
(평성 漁韻)

<제2단 본문 - 敍事>
畫閣朱樓盡相望 측측평평측평측 화려한 누각과 단청 집들이 멀리 이어져 있고
紅桃綠柳垂簷向 평평측측평평측 붉은 복숭아꽃과 푸른 버들 가지가 처마에 드리웠네
羅帷送上七香車 평평측측측평평 칠향거를 탈 때 비단 휘장으로 가리고
寶扇迎歸九華帳 측측평평측평측 구화장에 돌아오면 부채 들고서 맞이하네
(거성 漾韻)
狂夫富貴在青春 평평측측측평평 낭군은 젊은 나이에 부귀함이 넘쳐서
意氣驕奢劇季倫 측측평평측측평 교만과 사치한 기운이 계륜 보다 심하다
自憐碧玉親教舞 측평측측평평측 낙양 소녀를 사랑해서 친히 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不惜珊瑚持與人 측측평평평측평 산호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끼지 않았다
(평성 眞韻)
春窗曙滅九微火 평평측측측평측 봄 창가에 날이 밝자 비로서 九微燈을 끄는데

9) 앞의 책, 1337쪽 참조
10) 李永朱『杜詩의 章法과 格律』(明文堂, 2019) 254쪽 참조

www.kci.go.kr

九微片片飛花瑣 측평측측평평측 燈花 가루가 꽃무늬 창문에 하나 둘씩 떨어지네
戱罷曾無理曲時 측측평평측측평 유희가 파해도 더 이상 노래 연습하지 못하고
妝成祇是熏香坐 평평측측평평측 화장을 진하게 해도 그저 향기 품으며 서성일 뿐이라네
(상성 哿韻)

<제3단 結尾>
城中相識盡繁華 평평평측측평평 성안에서 알고 지내는 자는 모두 부귀한 가문이요
日夜經過趙李家 측측평평측측평 밤 낮으로 왕래하는 것은 貴戚의 집안이라네
誰憐越女顔如玉 평평측측평평측 누가 사랑해 주었나 백옥 같은 월나라 서시가
貧賤江頭自浣紗 평측평평측측평 빈천한 가운데 강 가에서 빨래하던 시절에
(평성 麻韻)

15세에 장안으로 올라와 왕부를 출입하던 중 18세 되던 해에 洛陽에서 지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16세에 지었다고 하는 판본도 있다. 11) 이 작품은 전체 20구가 4구씩 5개의 단락으로 분단하고 있다. 각 단락은 수구를 압운하면서 평운과 측운이 교대로 환운하고 있어 마치 칠언절구 5수를 연작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작법은 초당에서 확립된 칠언 가행체(잡언체) 또는 왕력이 주장하는 신식고풍의 장편 가행시에 해당한다. 왕력은 이처럼 환운의 거리와 운각의 성조에 정밀하게 배치한 전운의 고체(가행)시를 신식고풍이라고 불렀다. 12) 이러한 신식고풍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 번째는 평측이 대부분 율격에 맞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4구마다 환운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평운과 측운을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13) 이러한 칠언 가행시는 매 분단의 수구를 압운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작품도 예외없이 수구를 압운하여 전운의 단절을 이어주고 있다.

다음으로 평측 배치를 보면 전체 20구 가운데 제1단은 수구에서 '측평측평 측평평'으로 심하게 古句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근체시의 평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율구에 가깝다. 참고로 나머지 평측 격식에서 2

11) 진철민, 앞의 책 5쪽 참조
12) 왕력, 앞의 책 350쪽 참조
13) 왕력, 앞의 책 353쪽 참조

www.kci.go.kr

군데 ‘측측평평측평측’의 경우 칠언 ‘b’식(측측평평평측측)의 제6자가 측성이어야 하는데 평성이 된 경우 제5자에 ‘평’ 대신에 ‘측’을 써서 拗가 된 것을 제6자에 ‘平’으로 구한 것이다. 14) 이러한 拗救의 경우는 율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장법을 살펴보면 제1단은 개두 부분으로 주인공 낙양여아와 그의 낭군을 등장시켜 전체 시상을 이끌고 있다. 제2단은 본문 부분으로 부잣집에 시집간 낙양여아와 狂夫의 사치스런 생활을 화려한 시어로 묘사하고 있다. 제3단은 결미 부분으로 마지막 두 구에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중간 서사 부분은 전형적인 궁체풍의 수사법을 동원하여 낙양의 번화한 모습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귀족들의 사치와 방탕함, 여인의 호사스러움과 공허함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初唐體의 餘風을 이어받은 것이다. 顧可久는 이러한 풍격에 대해 “初唐王楊之體如此, 俊麗, 結斬絶”(초당 왕발과 양형의 시체가 이와 같은데, 이 시는 힘차고 아름답우며, 결미는 참신하고 빼어나다.) 라고 초당체의 영향을 지적하였다. 15) 다만 王楊에게는 이러한 풍격의 장편 가행체가 없고 실제로 盧照隣의 <長安古意>와 駱賓王의 <帝京篇> 가운데 異曲同工의 묘미와 풍격을 찾아볼 수 있다. 16)

마지막 2구는 결미 부분으로 ‘誰憐’의 의문사로 시작하여 시상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작자는 고체시의 결미 부분에 고사를 인용하여 比興의 효과를 주고자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西施의 고사를 통하여 懷才不遇의 감개를 기탁하고 있다. 왕유의 시 가운데 서시를 주제로 한 <西施詠>시를 보면 서시가 빼어난 미모와 자질을 갖추고 있으나 불우했던 젊은 시절을 동정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17) 백옥같은 미모를 갖추고 있으나 냇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14) 왕력, 앞의 책 100쪽 참조
15) 진철민, 앞의 책 7쪽 참조
16) 필자의 선행 연구인「駱賓王長篇歌行詩 形式分析」(中國語文學硏究會, 2020,4)을 참고하기 바란다.
17) <西施詠> : 豔色天下重, 西施寧久微. 朝爲越溪女, 暮作吳宮妃. 賤日豈殊衆, 貴來方悟稀. 邀人傅脂粉, 不自著羅衣. 君寵益嬌態, 君憐無是非. 當時浣紗伴, 莫得同車歸. 持謝鄰家子, 效顰安可希.

www.kci.go.kr

西施의 젊은 날의 불우함은 전반부에서 부귀한 가문에 시집와서 온갖 사치와 부귀를 누리는 洛陽女兒의 삶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 가운데 등장하는 두 여인의 형상은 당시 귀족 사회를 바라보는 작자의 냉정한 시선일 수도 있겠고 당시 왕부의 권력에 편승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沈德潛은『唐詩別裁, 卷五』에서 "結意況君子不遇也"(결구의 의미는 군자 불우의 정황을 말한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도 작자 자신의 불우함에 대한 강한 암시로 받아들인 것이다. 18)

다음으로 작자가 19세에 지었다고 하는 <桃源行>시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 작품은 陶淵明의 산문인 <桃花源記>를 장편 가행시로 개작한 것이다. 唐宋 시인 가운데 왕유를 포함해서 韓愈, 劉禹錫, 王安石이 武陵桃源을 주제로 하여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모두 新意를 다투었고 서로 뛰어나고 장점이 있었다고 하였다. 19) 왕유가 젊은 나이에 이 고사를 배경으로 시를 제작한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王府의 왕공 귀족들에게 자신의 문재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제1단>

漁舟逐水愛山春 평평측측측평평 어부는 봄 산이 좋아 배를 타고 물을 따라 갔는데
兩岸桃花夾古津 측측평평측측평 양쪽 물가 모두 복사꽃인 작은 골짜기에 이르렀다
坐看紅樹不知遠 평평평측평평측 붉은 꽃나무를 보느라고 멀리 온 것을 모르고
行盡青溪不見人 평측평평측측평 푸른 계곡 끝까지 들어가니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평성 眞韻)

<제2단>

山口潛行始隈隩 평측평평측평측 산 동굴로 잠행하니 처음에는 깊고 구불했는데
山開曠望旋平陸 평평측측측평측 산을 나오니 갑자기 탁 트인 평원이 펼쳐졌다
遙看一處攢雲樹 평평측측측평측 멀리서 보니 한 군데 구름같이 밀집한 숲이 있는데
近入千家散花竹 측측평평측평측 가까이 들어가니 백 여 가구가 화죽 사이에 산재하였다

18) 진철민, 앞의 책 7쪽 참조
19) 앞의 책 19쪽 : "宋陳巖肖曰 王摩詰, 韓退之, 劉禹錫, 本朝王介甫皆有歌詩, 爭出新意, 各相雄長."

www.kci.go.kr

樵客初傳漢姓名 평측평평측측평 나무하는 나그네가 비로소 한나라의 성명을 전하는데
居人未改秦衣服 평평측측평평측 주민들은 진대의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네
(입성 屋韻)

<제3단>
居人共住武陵源 평평측측측평평 주민들은 무릉도원에서 함께 살며
還從物外起田園 평평측측측평평 다시 이 세상 밖에다 전답을 일구었다
月明松下房櫳靜 측평평측평평측 밝은 달이 소나무 아래의 고요한 창문을 비추고
日出雲中雞犬喧 측측평평평측평 구름 사이로 해가 나오고 개와 닭이 울어댄다
(평성 元韻)

<제4단>
驚聞俗客爭來集 평평측측평평측 속세인의 소식을 듣고 놀라 다투어 몰려 와서
競引還家問都邑 측측평평측평측 경쟁적으로 집에 데리고 가서 도읍의 형편을 묻네
平明閭巷掃花開 평평평측측평평 날 밝으니 대문 앞과 골목의 낙화를 쓸고
薄暮漁樵乘水入 측측평평평측측 저녁에는 어부와 나무꾼이 배를 타고 돌아온다
(입성 緝韻)

<제5단>
初因避地去人間 평평측측측평평 애초에 난리를 피해 속세를 떠나 왔는데
及至成仙遂不還 측측평평측측평 선경에 이르자 마침내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峽裏誰知有人事 측측평평측평측 골짜기 안에 사람이 살거라고 누가 알겠는가
世中遙望空雲山 측평평측평평평 속세에서 멀리 바라보면 텅 빈 구름 덮인 산이 있을 뿐
(평성 刪韻)

<제6단>
不疑靈境難聞見 측평평측평평측 이 같은 선경을 찾기란 쉽지 않음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塵心未盡思鄉縣 평평측측평평측 속세에 미련이 남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出洞無論隔山水 측측평평측평측 동굴에서 나와 물론 멀리 산수와 멀어지게 되었지만
辭家終擬長遊衍 평평평측평평측 다시 집을 떠나 오래도록 그 곳에서 살고 싶었다
自謂經過舊不迷 측측평평측측평 길을 지나가며 옛 길을 잃을리 없다고 스스로 여겼지만
安知峰壑今來變 평평평측평평측 어찌 알았으랴 봉우리와 골짜기가 지금 변해 버린 걸
(거성 霰韻)

<제7단>
當時知記入山深 평평평측측평평 그저 기억나는 것은 당시에 산속 깊이 들어가
青溪幾曲到雲林 평평측측측평평 푸른 계곡 몇 굽이 돌아 구름 덮인 숲에 당도했다는 것

www.kci.go.kr

春來遍是桃花水 평평측측평평측 봄이 와서 도처에 도화수가 흐르지만
不辨仙源何處尋 측측평평평측평 도화원을 분간할 수 없으니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평성 侵韻)

전체 32구의 장편 가행으로 4구-6구-4구-4구-4구-6구-4구로 분단하였다. 매 분단의 첫 구를 압운하였고 환운시에 매 단락이 평운과 측운을 교대로 사용하고 있어 신식고풍에 해당한다. 매 단락의 평측 배치를 보면 제2단의 제2,3구와 제7단의 마지막 구에서 '평평측측측평측'. '측측평평평측평'의 경우 제5자에 평을 써야 하는데 측을 쓰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로 해서 고평, 고측 현상이 발생하였다. 근체시 제5구의 경우 가급적 拗救를 해야 하는데 고체시에 해당함으로 크게 제약 받지 않는다.[20] 그리고 제5단 마지막 구에서 '측평평측평평평'으로 하삼평이 발생하였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6구의 단락을 제외하고는 평측 배치가 엄정하고 압운이 정제하여 근체시 격률을 의식하고 지은 듯 하다.

이 작품은 제1단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제7단에서 시상을 마무리 하는 首尾相應의 장법을 보여주고 있다. 매 단락이 산문식의 서술 방식을 취하면서 분단 사이에 시상의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았다. 다만 제2단과 제3단의 사이에 '居人'을 반복 배치하여 무릉원의 지리 환경과 생활 모습을 이어 받는 過脈을 설정하였다.[21] 그리고 마지막 제7단은 결미 부분에 해당하는데, 제1단에서 제기한 시상을 받아 照應의 수법을 사용하여 전체의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조응의 수법은 시상을 연결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시상을 결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2] 본문에서는 제1단에서 '桃花', '山', '靑谿'의 시상을 제기하고 다시 제7단에서 동일한 시어를 받아 시상을 마무리 하고 있다. 따라서 첫 단락은 강물을 따라 가다 길을

20) 왕력, 앞의 책 96쪽 : "詩人對於丙種拗, 是必須救的, 否則就上節裏所說, 犯了孤平."
21) 과맥은 시상이 전환되어 넘어가는 부분을 의미하며 장법상 시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영주, 『杜詩의 章法과 格律』 47쪽 참조
22) 이영주, 앞의 책 96쪽 참조

www.kci.go.kr

잃고 도화원에 들어가는 장면, 둘째 단락은 동굴을 지나 도화원의 마을에 도착하여 주민을 만나는 장면, 셋째 단락은 고립된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묘사, 넷째 단락은 어부와 마을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 다섯째 단락은 마을 사람들 자신에 대한 소개, 여섯째 단락은 동굴을 빠져 나와 다시 돌아가는 장면, 일곱째 단락은 방문했던 도화원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내용으로 결미를 맺고 있다.

이 작품은 <도화원기>에 나오는 사건의 맥락이나 장소, 등장 인물에 대한 묘사를 생략하는 대신 무릉도원의 풍광과 전경에 대한 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제3단과 제4단의 후반 2구를 보면 공교한 대장을 사용하여 仙境의 아름다움과 幽寂한 정경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다. 이러한 서정성에 대해 沈德潛은 『唐詩別裁』에서 "順文敍事, 不須自出新意. 而夷猶容與, 令人味之不盡."(문장에 따라 서술하되 스스로 새로운 의견을 내지 않고 조용하고 한가함이 드러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궁무진한 맛을 느끼게 한다)라고 평가하였다. [23]

다음으로 작자가 20세에 지었다고 하는 <燕支行>시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 작품은 내용상 변새시에 해당하는데 다만 작자의 직접 종군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 [24] 따라서 이 작품은 실제 종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詠史의 방법을 동원하여 변방 주제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그로 인하여 성당에는 일시에 '無人不作邊塞詩'라는 국면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25]

<제1단>
漢家大將才且雄 측평측측평측평 한나라 대장은 재주있고 용감한데
來時謁帝明光宮 평평측측평평평 출정할 때 명광궁에서 천자를 배알하네
萬乘親推雙闕下 측측평평평측측 천자께서 궁문 앞에서 친히 전송하는데
千官出餞五陵東 평평측측측평평 많은 관리들이 오릉 동쪽에 나와 음식으로 전별하네

23) 진철민, 앞의 책 19쪽 참조
24) 작자는 開元 25년(737)년 37세 되던 해에 장안에서 右拾遺로 재직중 서북 변방인 梁州로 출사하였다.
25) 安炳國, 『唐詩史硏究』 106쪽 참조

www.kci.go.kr

誓辭甲第金門裏 측평측측평평측 금마문안에 화려한 저택에서 맹세하고 작별하는데
身作長城玉塞中 평측평평측측평 옥문관에 나가서 몸소 장성을 지키리라
衛霍才堪一騎將 측측평평측측측 위청과 곽거병도 하나의 기장군에 불과하리라
朝廷不數貳師功 평평측측측평평 조정에서는 이광리의 공도 따지기에 부족하네

(평성 東韻)

<제2단>

趙魏燕韓多勁卒 측측측평평측측 출정한 趙, 魏, 燕, 韓의 병사들 강인하고
關西俠少何咆勃 평평측측평평측 관서 지역의 협객 소년들도 용맹을 포효하네
報仇只是聞嘗膽 측평측측평평측 원수를 갚고자 하여 와신상담을 다짐하고
飮酒不曾妨刮骨 측측측평평측측 술을 마시며 뼈의 독을 깍아내는 것도 상관하지 않네
畫戟雕戈白日寒 측측평평측측평 조각한 창과 극은 대낮에도 차갑고
連旗大旆黃塵沒 평평측측평평측 줄지은 깃발과 큰 휘장기는 누런 먼지에 덮혔네
疊鼓遙翻瀚海波 측측평평측측평 북을 치니 한해의 파도가 뒤집히고
鳴笳亂動天山月 평평측측평평측 호가 소리 천산의 달을 어지러이 움직이네

(입성 月韻)

<제3단>

麒麟錦帶佩吳鉤 평평측측측평평 기린 모양의 비단 허리 띠와 오구의 칼을 차고 있는데
颯遝靑驪躍紫騮 측측평평측측평 청려마는 빠르고 씩씩하고 자류마는 날아오르네
拔劍已斷天驕臂 측측측측평평측 칼을 뽑아 싸우면 흉노의 우익을 자르고
歸鞍共飮月支頭 평평측측측평평 말에서 내려서는 월지왕의 머리로 술을 마시네
漢兵大呼一當百 측평측평측평측 한나라 군사 큰 외침에 일당백이 되고
虜騎相看哭且愁 측측평평측측평 오랑캐 기병들 서로 보며 울면서 근심하네
敎戰雖令赴湯火 측측평평측평측 비록 뜨거운 물과 불구덩이에 들어가라고 가르쳤지만
終知上將先伐謀 평평측측평측평 장군께서 지모로서 정벌을 우선함을 마침내 알겠구나

(평성 尤韻)

이 작품은 이상에서 보듯이 8구, 8구, 8구의 3개 단락으로 분단하고 있는데, 각 단락은 수구를 압운하면서도 압운이 정제하며 단락간에 평운과 측운을 교대로 환운하고 있다. 기존의 장편가행시가 대부분 4구마다 환운하는 것과 달리 8구로 환운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변새의 풍광과 전쟁하는 장면을 묘사하다 보니 편폭이 길어진 듯 하다. 그럼 매 단락의 평측 배치를 살펴보면,

www.kci.go.kr

우선 제1단에서 '평평측측평평평', '측측평평측측측'의 경우 제5자에 拗字를 사용하여 하삼평과 하삼측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미 <도원행>에서 살펴 본 바 있듯이 제5자에 요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왕유 가행시의 평측 배치 방법이라고 하겠다. 제2단에서 2군데 '측측측평평측측'의 경우 제3자에 발생한 요자의 경우 요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제3단에서 '측측측측평평측', '측평측평측평측'의 배치는 완전히 古句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몇 구의 고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근체 율구에 가까워 전체적으로 수구압운 칠언율시 3수를 연작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이 시는 3개의 분단이 내용상 대등한 정립 형태가 아니라 兩頭一角의 장법을 보여주고 있다. 제1단은 장수가 천자를 배알하여 출정하여 큰 공을 세울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고, 제 2단은 병사들의 용맹함과 서역 지방을 종군하는 군기의 정연함을 서술하고 있다. 제3단은 제1단과 제2단의 장수와 병사들이 흉노와 월지의 오랑캐와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지막 2구는 전체 시상을 마무리 하는 결미 부분에 해당한다. 淸의 吾喬도『圍爐詩話, 卷2』에서 작자의 바른 뜻이 마지막 구에 있다고 하였다.[26] 작자는 마지막 구에서 이러한 원정의 관건은 무력이 아닌 장군의 智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마지막 구는 첫구인 '漢家大將才且雄'에서 시상을 이끌어 낸 것과 마지막 구가 서로 조응하면서 결미를 잘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략 20세경 <연지행>과 비슷한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少年行四首>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宋代의『樂府詩集』을 보면 <結客少年場行> 제목 아래 이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결객소년장행>에 대한 樂府解題를 보면 "言輕生重義, 慷慨以立功名."(생을 가볍게 여기고 의를 중시하며 비분강개하면서 공명을 세우고자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연지행>과 마찬가지로 변새를 주제로 하여 建功立業의 바람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이 작품은 연작 고체시에 해당하는데 내용을 보면 각 개별시의 시상이 조직적으로 안배되어 있고 개별 시 상호간에 시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6) 진철민, 앞의 책 33쪽 : "王右丞之燕支行, 正意只在終知上將先伐謀."

www.kci.go.kr

두보의 연작 고체시를 보면 이와 같은 장법으로 시상을 배치한 작품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27)

<제1수 개두>
新豐美酒斗十千 평평측측측측평 신풍의 미주는 한 말에 만냥이고
咸陽遊俠多少年 평평평측평측평 함양의 협객은 젊은이들이 많다
相逢意氣爲君飮 평평측측측평측 서로 만나 의기투합하여 벗을 위해 술 마시고
繫馬高樓垂柳邊 측측평평평측평 말은 누각의 버드나무 옆에 매어 놓았네
(평성 先韻)

<제2수 본문1 - 서사>
出身仕漢羽林郎 측평측측측평평 몸을 내어 한나라의 우림랑으로 벼슬하여
初隨驃騎戰漁陽 평평평측측평평 처음에 표기장군을 따라 어양에서 싸웠네
孰知不向邊庭苦 측평측측평평측 변방을 향한 괴로움을 어찌 모르겠냐 마는
縱死猶聞俠骨香 측측평평측측평 설령 죽더라도 소년의 뼈는 향기로우리라
(평성 陽韻)

<제3수 본문2 - 서사>
一身能擘兩雕弧 측평측측측평평 혼자서 두 개의 목궁을 당겨 쏠 수 있으니
虜騎千重只似無 측측평평측측평 오랑캐 기병 천 겹으로 둘러싸도 다 없애 버리리라
偏坐金鞍調白羽 평측평평평측측 황금 안장에 앉아 흰 깃 화살을 겨누고
紛紛射殺五單于 평평측측측평평 잇달아 활을 쏘아 다섯 선우를 죽이네
(평성 虞韻)

<제4수 - 결미>
漢家君臣歡宴終 측평평평평측평 한나라 군신들이 즐거운 연회를 마치고
高議雲臺論戰功 평측평평평측평 운대에서 의논하며 전공을 논의하네
天子臨軒賜侯印 평측평평측평측 천자는 누각에서 제후의 인장을 하사하니
將軍佩出明光宮 측평측측평평평 장군의 패를 차고서 명광궁에서 나오네
(평성 東韻)

연작 고체시 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4단락으로 나누어 환운한

27) 이영주, 앞의 책 285쪽 참조

www.kci.go.kr

신식고풍의 장법을 취하고 있다. 다만 신식고풍의 경우 4구마다 환운하며 평운과 측운이 교대로 환운해야 하는데, 이 작품은 모두 평성운으로 압운하고 있어 장편 가행체와 구분하기 위해 '四首'라는 시제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 편의 평측 배치를 살펴보면 제1수의 경우 '평평측측측측평'과 '평평측측측평측'은 古句에 해당한다. 제2수와 제3수는 모두 율구의 격률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 제4수는 '평측평평측평측'을 제외하고 3구가 모두 古句에 해당한다.

이 시는 연작 고체시임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시의 시상이 조직적으로 안배되어 있고, 개별 시 상호간에 시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1수는 나머지 3수의 시상을 이끌어 주는 개두 부분에 해당하는데 제2구의 '咸陽遊俠'이 전체 시상을 이끌고 있다. 제2수와 제3수는 본문 부분으로 출사하여 종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다만 제2수는 유협이 출사하여 출정하는 장면과 불굴의 각오를, 제3수는 변방에 나가 실제 전투하여 공을 세우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제4수는 결미 부분으로 협객소년이 개선하여 돌아오니 천자가 장군의 패를 선사하고 있는데, 제1수의 '少年'이 제4수에서 '將軍'으로 연결되어 시상의 배치가 서로 조응하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음으로 개원상 후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不遇詠>시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 시는 작자가 개원 15년 27세 되던 해에 淇上(今 河南 淇河)에 재직하고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하였다.[28] 이 무렵 작자는 濟州의 관직을 사임하고 장안으로 돌아와 歸隱할 뜻이 있었으나 가사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구직 활동을 하다가 마침내 淇上에 부임하게 되었다.[29] 그리고 이듬해 淇上에서 관직을 그만두고 전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작품으로 <淇上卽事田園>시가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무렵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불우영>시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당시의 복잡한 심정을 장편 가행체 형식에 담아 내었다.

28) 진철민, 앞의 책 80쪽 참조
29) 앞의 책, 1334쪽 참조

www.kci.go.kr

<제1단 개두 >
北闕獻書寢不報 측측측평평측측 북궐에 관직을 바라는 글을 바쳤지만 회답이 없고
南山種田時不登 평평측평평측평 남산에 밭을 갈아도 때가 되어 수확이 없네
百人會中身不預 측평측평평측측 조정의 백인 회중에 자신은 참여하지 못하고
五侯門前心不能 측평평평평측평 權貴한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네
(평성 蒸韻)
<제2단 본문>
身投河朔飮君酒 평평평측측평측 자신은 하삭에 의거하며 그대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家在茂陵平安否 평측측평평평평 무릉에 있는 식구들은 평안하신지요
且共登山復臨水 측평평평측평측 잠시 벗과 함께 산에 오르고 또 물가에도 가보고 하지만
莫問春風動楊柳 측측평평측평측 봄바람이 불어 버드나무 날리는 것을 묻지 마시오
(상성 有韻)
<제3단 결미>
今人作人多自私 평평측평평측평 지금 사람은 사람을 대함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니
我心不說君應知 측평측측평측평 내 마음 이로 인해 기쁘지 않으니 그대도 알아 주리라
濟人然後拂衣去 측평평측측평측 세상을 구제하고 나서 옷에 먼지 털고 떠나야지
肯作徒爾一男兒 측측평측측평평 단지 평범한 대장부로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평성 支韻)

전체 12구가 4구씩 3개의 단락으로 분단하고 있다. 각 단락은 수구를 압운하면서 평운과 측운이 교대로 환운하고 있어 신식고풍 칠언 가행시에 해당한다. 매 단락의 평측 배치 격식을 보면 제1단에서 '측측측평평측측'만 율구, 제2단도 '측측평평측평측'만 율구, 제3단도 '측평측측평측평'만 율구이고 나머지는 모두 고구에 해당한다. 신식고풍의 경우 4구마다 환운하며 평측이 입율해야 하는데, 이 시의 경우는 평측 배치가 근체시 격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이전 작품인 <洛陽女兒行>, <桃源行>, <燕支行>, <少年行四首>시가 근체시 격률에 가까운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작자가 은거를 염두에 두고 전원에서 자신의 심경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자 하여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고체시 본연의 자유 분방함과 절주를 살리려고 했던 것 같다.

제1단은 개두 부분으로 '不報', '不登', '不預', '不能'의 어구가 전체 시상을

www.kci.go.kr

이끌고 있는데, '不'자를 반복 사용하여 求官이 여의치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2단은 본문 부분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河朔'의 친우에게 몸을 의지한 채 우인과 더불어 산수를 유람하는 은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제3단은 결미 부분으로 마지막 2구에서 시상을 마무리 하고 있다. 작자는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면서도 濟世致用하여 功業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제1단의 4개 '不'자는 전체 시상을 이끌면서 결미에 조응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을 마련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不說'(기쁨이 없다)이라는 시어이다.

2.2 開元下 時期(734-741) - 天寶上 時期(742-750)

734년 작자는 당시 中書令으로 있던 張九齡의 천거를 받고 마침내 右拾遺로 발탁되었다. 737년 가을에 監察御史로 승진한 후 왕명을 받고 변경인 梁州 지역으로 출사하였다. 이 곳에서 2년간 머문 작자는 장안으로 돌아 왔다가 다시 嶺南 지역으로 출사하였고, 다시 장안으로 돌아온 후 마침내 741년에 종남산에 은거하게 되었다. [30] 왕유가 이 기간에 지은 가행시로 <雙黃鵠歌送別>, <隴西行>, <老將行>, <隴頭吟>시가 있는데, 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변새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럼 먼저 <雙黃鵠歌送別>시의 형식과 작법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 작품은 河西에 체류하는 동안에 장안으로 귀환하는 막료를 송별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시는 구중에 '兮'자를 사용하고 있어 전통적인 고체시에 초사체의 구법을 혼용하고 있다. 이처럼 가행체에 대량의 賦體를 사용하여 장편의 가행체를 제작하는 수법은 初唐四傑의 장편 가행시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도 梁 文帝의 <從軍行>, 庾信의 <春賦>, <鏡賦> 등도 부체에 오언과 칠언의 구법을 대량으로 혼용하였다. [31]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서 작자 역

30) 이용재, 앞의 책 64쪽 참조
31) 安炳國,『唐詩史硏究』68쪽 참조

www.kci.go.kr

시 장편 가행시를 창작 함에 있어 변부의 句式과 끝없이 이어지며 점층적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반복적 효과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작품은 송별을 주제로 하고 있어 부체의 영향 보다는 屈原의 離騷에 보이는 회재불우에 대한 감개가 묻어나는 강한 서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1단 개두>
天路來兮雙黃鵠 천상에서 내려온 한 쌍의 고니
雲上飛兮水上宿 구름 위를 날다가 물가에 머무네
撫翼和鳴整羽族 날개 만지고 서로 지저귀면서 깃털을 다듬었네
(입성 屋韻, 沃韻 통압)

<제2단 본문-서사>
不得已 서로 함께 지내다 어쩔 수가 없어서
忽分飛 갑자기 헤어져 날게 되었네
家在玉京朝紫微 그 대 집이 수도 장안의 자미궁에 있어
主人臨水送將歸 주인은 물가에서 장차 돌아가는 그대를 전송하네
悲笳嘹唳垂舞衣 슬픈 호가 소리에 눈물이 춤추는 옷에 떨어지고
賓欲散兮復相依 객이 떠나려 하니 다시 서로 안아보네
幾往返兮極浦 포구 끝까지 여러번 왔다 갔다 해보고
尙裴回兮落暉 저무는 햇빛 아래서 아직 배회하고 있네
(평성 微韻)

<제3단 결미>
岸上火兮相迎 물가의 언덕 위로 불빛이 나를 맞이하고
將夜入兮邊城 밤이 깊어져서 변성에 도착하네
鞍馬歸兮佳人散 말타고 돌아오니 기녀들도 흩어지고
悵離憂兮獨含情 근심을 만나 괴로운데 홀로 그리운 정 남았구나
(평성 庚韻)

이 시는 가행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따로 평측 격식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단락을 분석해 보면 3구, 8구, 4구로 분단되며 평측운이 교대로 환운하지 않고, 제2단의 경우 매구 압운을 하고 있다. 그러나 4구 단락의 경우만 보면 고체의 구식은 아니지만 평측 배치가 엄정하고 압운이 정제하여 신식고풍에

www.kci.go.kr

해당한다. 제3단의 경우 매 구 압운을 하게 되면 리듬과 호흡이 급박해 지는데 아마 석별의 아쉬움을 극대화 하려고 한 듯 하다. 실제로 본문에서 '嘹唳'나 '復相依' 등의 표현을 통해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시는 또한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단락의 크기를 조절하는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개두 부분은 시상을 일으키기 위함이어서 단락이 짧고 본문은 헤어짐의 아쉬움을 표현하기에 단락이 길어진 것이다. 제1단은 비흥의 수법을 사용하여 전체 시의 시작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詩經에서 보듯이 비흥은 시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32) 첫째구의 '雙黃鵠' 즉 한 쌍의 고니는 작자와 송별 대상인 막료를, '水上宿'은 장안을 떠나 지금 변방에 머물고 있음을 각각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1단은 개두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 시상을 이끌고 있고, 제2단은 본문 부분으로 강가에 까지 나와 배웅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포옹하는 장면을 통해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제3단은 결미 부분으로 제1단의 '撫翼和鳴'의 어구를 마지막 '含情'의 어구와 조응하게 함으로써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구의 '離憂' 즉 근심을 만났다는 구절은 작자가 굴원의 騷體를 사용하여 송별의 시를 작시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작자가 邊城에 체류하면서 지은 <老將行>시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 시는 총 30구의 장편으로서 3개의 단락이 10구로서 분단하는 정립체의 시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1단 본문>
少年十五二十時 측평측측측측평 소년은 15세에서 20세가 되어
步行奪得胡馬騎 측평측측평측평 걸어가서 오랑캐 기마를 취하는구나
射殺山中白額虎 측측평평측측측 산속의 흰 머리 호랑이를 쏘아서 죽이고
肯數鄴下黃須兒 측측측측평평평 업성의 황수아에 어찌 부족하다 하겠는가
一身轉戰三千里 측평측측평평측 한 몸으로 삼천리를 돌아다니며 싸우고
一劍曾當百萬師 측측평평측측평 검 하나로 백만의 군대를 대적했다네

32) 이영주, 앞의 책 290쪽 참조

www.kci.go.kr

漢兵奮迅如霹靂 측평측측평측측 한나라 병사들은 민첩하고 빨라 우레와 같은데
虜騎崩騰畏蒺藜 측측평평측측평 오랑캐 기병은 달아나는데 남가새풀을 두려워 하네
衛靑不敗由天幸 측평측측평평측 위청이 패하지 않은 것은 천행이 있었고
李廣無功緣數奇 측측평평평측평 이광이 공이 없는 것은 운수가 불길한 연고라네

(평성 支韻)

<제2단 본문>

自從棄置便衰朽 측평측측측평측 스스로 종군하고자 하나 버려져서 노쇠하게 되었고
世事蹉跎成白首 측측평평평측측 세상 일에 어그러져 흰머리가 되었네
昔時飛雀無全目 측평평측평평측 예전에 날던 새도 화살에 눈이 다 없을 정도 였는데
今日垂楊生左肘 평측평평평측측 지금은 활을 쏘지 못해서 왼쪽 팔뚝에 혹이 늘어졌다네
路傍時賣故侯瓜 측측평측측평평 길 옆에서 東陵侯처럼 수박을 파는 신세
門前學種先生柳 평평측측평평측 문 앞에서 도연명의 버드나무 심던 지취를 배운다네
蒼茫古木連窮巷 평평측측평평측 푸른 고목들이 궁벽한 골목에 이어있고
寥落寒山對虛牖 평측평평측평측 쓸쓸한 겨울산이 누추한 창문을 마주하고 있네
誓令疏勒出飛泉 측측평측측평평 맹세컨대 소륵국에서 싸워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不似潁川空使酒 측측측평평측측 영천군의 灌夫처럼 헛되이 술로 호기부리지 않으리

(상성 有韻)

<제3단 결미>

賀蘭山下陣如雲 측평평측측평평 하란산 아래 적의 진영은 구름처럼 모여있고
羽檄交馳日夕聞 측측평평측측평 격문이 자주 보내져 아침 저녁으로 소식 들어오고
節使三河募年少 측측평평측평측 사신들이 삼하에서 젊은이들을 모으고
詔書五道出將軍 측평측측측측평 조서가 내려져 다섯 길로 장군이 출정하네
試拂鐵衣如雪色 측측측평평측측 갑옷을 닦으니 하얀 눈빛이 나고
聊持寶劍動星文 평평측측측평평 보검을 손에 쥐니 칠성 무늬가 번쩍인다
願得燕弓射大將 측측측평평측측 연궁으로 대장을 맞추기를 원하노니
恥令越甲鳴吾君 측평측측평평평 월나라 군대가 우리 임금을 놀라게 한 것이 부끄럽다
莫嫌舊日雲中守 측평측측평평측 예전에 운중태수 魏尙과 같이 되는 것도 꺼리지 않으니
猶堪一戰立功勳 평평측측측평평 여전히 한 번 싸워 공훈을 세우고 싶구나

(평성 文韻)

왕유의 가행시 가운데 유일하게 10구마다 분단하면서 평측운을 교대로 사

www.kci.go.kr

용하여 환운하고 있는데 기존의 변새시와 달리 직접 변방을 종군하는 경험을 묘사하다 보니 편폭이 길어 진 듯 하다. 모든 단락의 평측 배치 격식을 보면 우선 제1단의 경우 10구 가운데 4군데 제2단락의 경우 다섯 군데.제3단의 경우 일곱 군데에서 율구의 격률을 갖추고 있어 평측의 배치는 근체시의 영향을 받아 매우 엄정한 편이다.

이 시는 3개의 분단이 서로 독립된 정립 형태가 아니라 흔히 장편 배율에 보이는 兩角一尾體의 장법을 보여주고 있다. 33) 우선 제1단은 '少年'의 첫 구로 시작하여 유협 소년이 종군하여 전공을 세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제2단은 첫 구가 '衰朽'로 시작하여 늙은 장수가 종군하지 못하는 신세에 대한 한탄과 건공입덕의 바람을 묘사하고 있다. 제3단은 다시 제1단과 제2단의 소년과 늙은 장수가 흉노를 무찌르기 위하여 종군하는 장면과 필승의 각오를 묘사함으로써 시상을 마무리 하고 있다. 이 시는 매 분단의 마지막 구에 고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제1단에는 李廣의 고사를, 제2단에는 灌夫의 고사를, 제3단에는 魏尙의 고사를 각각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사의 공통점은 오랑캐와 적을 무찌르고 공훈을 세웠으나 한결같이 조정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시제의 '老將'은 왕유 자신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변방에서 공훈을 세워 다시 장안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유의 이러한 변새시 주제와 풍격은 동시대 岑參이나 高適 등이 변새를 직접 체험하고 나서 이국적인 풍광이나 영웅적인 전쟁 장면을 묘사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살펴 본 바 있듯이 직접 종군 하기 이전인 개원상 시기에 지은 <연지행>이나 <소년행사수>의 장법이나 표현 방식, 주제도 이러한 변새시 풍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老將行>과 비슷한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隴頭吟>과 <隴西行>시가 있다, 이 가운데 <隴西行>은 오언 6구의 짧은 구식으로 칠언가행체가 아니어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34) <隴頭吟>은 전체 10구의 단편 칠

33) 이영주, 앞의 책 553 참조

www.kci.go.kr

언 가행체 형식으로 평측운이 교대하면서 4구와 6구로 나누어진다.

<제1단 개두>
長安少年遊俠客 평평측평평측측 장안의 소년 협객으로 노닐며
夜上戍樓看太白 측측측평평측측 밤에 수루에 올라 태백성을 바라본다
隴頭明月迥臨關 측평평측측평평 隴山의 밝은 달 멀리 隴關을 비추고 있고
隴上行人夜吹笛 측측평평측평측 농산을 지나는 행인은 밤에 피리를 부네
(입성 陌韻, 錫韻)

<제2단 본문 및 결미 >
關西老將不勝愁 평평측측측평평 관서의 늙은 장수 수심을 이기지 못하고
駐馬聽之雙淚流 측측평평평측평 말을 멈추고 음악 들으니 눈물이 주룩 주룩
身經大小百餘戰 평평측측측평측 몸소 대소간에 백여차례 전쟁을 치른터라
麾下偏裨萬戶侯 평측평평측측평 휘하의 부장들도 만호후에 봉해졌네
蘇武才爲典屬國 평측평평측측측 소무는 겨우 전속국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節旄落盡海西頭 측평측측측평평 부절과 깃발은 북해 서쪽 끝에서 영락해 버렸네
(평성 尤韻)

제1단은 입성인 陌韻과 錫韻을 통압하여 사용하였고 제2단은 평성운으로 환운하고 있다. 제2단의 경우 4구 분단이 아닌 6구로 단락을 이루고 있지만 수구를 압운하면서 정제한 압운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1단의 평측 격식을 보면 '평평측평평측측'의 구식을 제외하면 비교적 율구에 가깝고, 제2단은 세 군데 제5자에서 拗字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역시 율구에 가깝다.

제1단의 4구는 개두 부분으로 장안의 소년 협객을 등장시켜 전체 시상을 이끌고 있고, 제2단 첫 구에 關西老將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과 뒤의 단락을 연결하는 시상의 연결 장치가 필요한데 여기서 바로 '吹笛' 피리 소리를 통해 다음 단락의 노장으로 하여금 무한한 수심에 잠기게 한다. 즉 변성을 지키는 협객 소년이 미래의 노장의 처지가 될

34) 十里一走馬, 五里一揚鞭. 都護軍書至, 匈奴圍酒泉. 關山正飛雪, 烽戍斷無煙. (평성 先韻)

www.kci.go.kr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런 장법의 배치는 앞선 <노장행>과 아주 흡사하지만 다만 제3단을 구성하지 않고 제2단의 마지막 2구에 결미를 만들어 시상을 마무리 한 것이 다를 뿐이다. 마지막 구 결미 부분은 고사를 동원하여 비흥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흉노의 사신으로 가서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돌아왔지만 공을 인정 받지 못하고 典屬國에 봉해졌던 蘇武의 고사를 통하여 老將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다.

742년 작자는 장안에서 左補闕을 제수 받아 출사하게 되었고, 745년에는 다시 侍御史로 전임하였다가 북쪽 변방인 榆林縣과 新秦縣으로 감찰을 가게 되었다. 746년에는 庫部員外郎으로 관직을 전임하였고, 748년에는 庫部郎中으로 승진하였다가, 750년에 모친상을 당해 조정을 떠나 輞川에 은거하게 되었다. [35] 이 기간에 지은 가행시로 <新秦郡松樹歌>, <榆林郡歌>, <同比部楊員外十五夜遊有懷靜者季>, <故人張諲工詩善易卜兼能丹青草隸頃以詩見贈聊獲酬之>시가 전하고 있다. 먼저 <新秦郡松樹歌>시는 新秦郡으로 시찰가는 길에 만난 소나무의 당당함과 기품을 노래한 작품으로 영물시에 해당한다. 전체 7구의 잡언 형식의 단편 가행체인데, 가행체 형식으로는 드물게 詠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제1단 개두>
青青山上松　　평평평측평　　푸릇 푸릇 산위에 소나무
數里不見今更逢 측측측측평측평 몇 리 동안 보이지 않다가 지금 다시 만나는구나
(평성 冬韻)

<제2단 본문>
不見君　　측측평　　그대를 보지 못하여
心相憶　　평평측　　마음으로 늘 생각했네
此心向君君應識 측평측평측측측 이 마음 그대를 향하니 그대는 마땅히 알고 있으리라
(입성 職韻)

<제3단 결미>

35) 진철민, 앞의 책 1355-1358쪽 참조

www.kci.go.kr

爲君顔色高且閑 측평측측평측평 그대로 인해 용모가 고아하고 한적하게 되나니
亭亭迥出浮雲間 평평측측평평평 그대 모습 뜬 구름 사이로 우뚝 솟아 있구나
(평성 刪韻)

삼언, 오언, 칠언이 혼합된 잡언체 형식으로 환운에 따라 세 개의 단락으로 분단할 수 있다. 단락이 평운과 측운으로 교대하고 있지만 오언과 칠언에서 평측의 배치가 모두 율구에서 벗어나 있어 신식고풍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사 도중에 만난 소나무에 순간적인 감흥을 기탁하고자 하여 편폭이나 구수에 제한이 있는 듯 하다. 제1단은 개두 부분으로 전체 시상을 이끌고 있고, 제2단은 개두를 이어 받아 평소에 소나무에 대한 애착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제3단은 결미 부분인데 제1단 첫 구에서 '靑靑'으로 시작하고 제3단의 마지막 구에 '亭亭'을 배치함으로써 시상을 연결하여 조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으로 비슷한 시기에 楡林郡을 지나가면서 지은 <楡林郡歌>시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총 6구 가운데 칠언이 5구가 되어 단편 칠언가행체에 가까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1단 개두 >
山頭松柏林 평평평측평 산 위에 소나무와 잣나무 숲
山下泉聲傷客心 평측평평평측평 산 아래의 샘 소리가 나그네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
(평성 侵韻)

<제2단 본문 및 결미 >
千里萬里春草色 평측측측평측측 천리 만리가 봄 풀의 푸른색
黃河東流流不息 평평평평평측측 황하는 동쪽으로 흐르는데 물길이 쉬지 않고 흐르고
黃龍戍上遊俠兒 평평측측평측평 황룡성 수루 위에 있는 유협의 소년
愁逢漢使不相識 평평측측측평측 수심속에 나를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입성 職韻)

제1단은 개두 부분으로 눈 앞에 보이는 '松柏林'을 통해 마음의 감회를 기탁하며 시상을 이끌고 있다. 제2단에서 처음 2구는 楡林郡으로 가는 도중에

www.kci.go.kr

시야에 들어온 풍광 묘사이고, 마지막 2구에서 시상을 마무리 하고 있다. 제1단의 傷心이 결미 마지막 구 '愁心'과 잘 연결되어 조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물에서 촉발된 상한 마음이 외롭게 변성에서 종군하는 유협 소년의 처지에 대한 동정으로 승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작자가 庫部員外郎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同比部楊員外十五夜遊有懷靜者季>시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36] 진철민의 <王維年譜>를 보면 작자가 46세가 되던 天寶 五年(746)에 庫部員外郎으로 전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37] 이 시는 당시 함께 임직하고 있던 楊員外와 함께 정월 대보름 밤에 연등 행사를 구경하면서 은거에 대한 염원을 밝힌 것이다.

<제1단 개두>

承明少休沐	평평측평측	承明廬에서 약간의 쉬는 시간이 있어
建禮省文書	측측측평평	건예궁에서 문서를 살핀다
夜漏行人息	측측평평측	저녁 시간이 되자 행인이 끊기고
歸鞍落日餘	평평측측평	지는 해 받으며 말타고 집으로 돌아가네

(평성 漁韻)

<제2단 敍事>

豈知三五夕	측평평측측	정월 대보름 저녁인지를 어찌 알아
萬戶千門闢	측측평평측	집집마다 문에 등불을 달고 열어 놓았구나
夜出曙翻歸	측측측평평	밤에 나왔다가 새벽에야 돌아가는데
傾城滿南陌	평평측평측	미인들이 南陌 거리에 가득하다네

(입성 陌韻)

陌頭馳騁盡繁華	측평평측측평평	길거리를 말로 달리는데 모두 호사스런 집들이고
王孫公子五侯家	평평평측측평평	왕손과 공자 오후들의 집이라네
由來月明如白日	평평측평평측측	예전부터 달 밝으면 대낮과 같다는데
共道春燈勝百花	측측평평측측평	함께 가는 길에 대보름날 등은 백화 보다 아름답네
聊看侍中千寶騎	평평측평평측측	시중이 타고 가는 보석 덮힌 기마를 잠시 보고

36) 진철민, 앞의 책 260쪽 참조
37) 앞의 책, 1353쪽 참조

www.kci.go.kr

强識小婦七香車 평측측측측평평 젊은 여인이 타고 있는 칠향거도 눈에 들어오네
(평성 麻韻)
香車寶馬共喧闐 평평측측측평평 수레와 마차 지나가면서 모두 시끄럽고 북적거리는데
個裏多情俠少年 측측평평측측평 그 안에는 다정한 의협의 소년들도 있네
競向長楊柳市北 측측평평측측측 다투어서 장양궁과 柳市 북쪽으로 가는데
肯過精舍竹林前 측측평평측평평 불사의 대나무 숲 앞으로 기꺼이 지나가네
(평성 先韻)

<제3단 결미>
獨有仙郎心寂寞 측측평평평측측 오직 양원외 만이 마음이 적막한 가운데
卻將宴坐爲行樂 측평측측평평측 도리어 좌선하고 앉아 행락으로 삼는다네
儻覺忘懷共往來 측측평평측측평 만약 세속을 잊고 함께 내왕 하기를 바란다면
幸沾同舍甘藜藿 측평평측평평측 함께 낭관이 되어 명아주국 달게 여기게 되기를 바란다
(입성 藥韻)

이 작품은 전체 20구가 오언 4구, 오언 4구, 칠언 6구, 칠언 4구, 칠언 4구의 단락으로 나누어 진다. 그리고 중간 칠언 6구에서 칠언 4구로 넘어 가는 단락에서 평성운으로 환운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평측운을 교대로 사용하였다. 각 단락의 평측 격식을 조사해 보면 우선 오언 4구의 제1단락과 제2단락은 평측이 정연하여 모두 근체 율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칠언 6구의 제3단락은 '측측평평측측평'의 구를 제외하고 모두 古句이고, 제4단락 칠언 4구 절반은 율구이고 나머지 절반은 고구이다. 마지막 제5단락은 '측평평측평평측'에서 本句自救가 이루어져 전체 율구에 해당한다. 압운의 양상을 보면 환운시에 오언의 경우 수구를 압운하지 않는데, 이 시에서는 압운을 일부 하였고 나머지 칠언의 경우는 예외없이 수구 압운하였다. 잡언체 구식을 구사하면서도 평측 배치, 압운의 정연함, 평측운의 교대 사용 등을 볼 때 초당체 신식고풍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 시는 내용상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뉘어 진다. 처음 개두 부분은 詩題를 破題하면서 전체 시상을 이끌고 있다. 제2단 첫구에 '豈'자를 배치하여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짐을 암시하면서 같은 오언으로 배치하여 시상을 이어 받

www.kci.go.kr

았다. 제2단의 첫 4구는 2단의 본문 부분인 칠언구를 연결하는 過脈(過段)에 해당한다. 시상을 연결하는 보조 수단으로 과맥은 시상이 전환하는 곳에서 앞과 뒤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다. 38) 이처럼 제2단의 첫 번째 환운 자리에 '南陌'을, 제2분단과 제3분단 사이에 '七香車'를 연결하여 앞 문장의 끝말을 다음 구의 첫 자에 사용하는 '頂針'의 수사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수사법은 蟬聯이라고 하는데 고대 민가에서 주로 사용하던 방법으로 初唐 장편 칠언 가행시에서 환운하는 단락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39) 작자가 우인과 대보름 밤에 연등을 구경하러 '南陌'으로 나가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다음 단락을 이어주는 연결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제2단의 칠언구는 화려한 시어를 사용하여 장안성의 번화함과 귀족들의 사치와 방종을 賦의 수법으로 포진하고 있다. 제2단에서 분단 사이에 평성에서 평성으로 환운하면서 '七香車'를 분단의 앞과 뒤에 배치하여 시상을 이어 받고 있다. 자칫 장편의 가행시가 포진으로 일관하여 지루할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작자는 분단을 정제하게 하면서 과맥을 설정하여 시상의 전환과 연결을 적절하게 안배하였다. 제4단은 결미 부분으로 시상을 총괄하면서 작시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 분단 첫구에 '獨'자를 써서 시상의 전환을 유도하여 양원외의 적막한 마음과 좌선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제3단 귀족들의 사치와 방탕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마지막 2구에서 그와 더불어 자연으로 은거하여 소박한 삶의 정취를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故人張諲工詩善易卜兼能丹青草隸頃以詩見贈聊獲酬之>시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시제를 보면 작자가 시, 주역, 단청, 초예 등에 뛰어난 벗 張諲에게 시를 증정하여 화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자와 막역한 사이었던 張諲은 관직이 刑部員外郎에 이르렀고, 주역에 밝았고 초서와 예서를 잘 썼으며 丹青에 재주가 있었는데, 왕유, 李頎 등과 詩酒丹青의 벗이 되었다고 한다. 40) 왕유의 문집을 보면 張諲과 주고 받은 시로 <戲贈張五弟諲三首>,

38) 이영주, 앞의 책 96쪽 참조
39) 安然,「論初唐七言古詩的演進」(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43쪽 참조

www.kci.go.kr

<答張五弟>, <送張五歸山>, <送張五諶歸宣城> 시가 전하고 있는데, 모두 오언 율시나 오언 배율로 제작하였고 유일하게 이 작품만 칠언가행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1단>
不逐城東遊俠兒 측측평평평측평 성 동쪽에 유협의 무리를 쫓아 다니지 않고
隱囊紗帽坐彈棋 측평평측측측평 비단 모자 쓰고 방석에 기대어 바둑을 두네
蜀中夫子時開卦 측평평측평평측 그대는 엄군평이 때때로 점괘를 열어준 것처럼 하였고
洛下書生解詠詩 측측평평측측평 낙하서생처럼 노래도 잘 읊어 주었다네
(평성 支韻)

<제2단>
藥闌花徑衡門裏 측평평측평평측 누추한 집에는 담 사이로 꽃 길이 나 있고
時復據梧聊隱几 평측측평평측측 때때로 거문고에 의지하고 안석에 기대어 졸기도 히고
屛風誤點惑孫郎 평평측측측평평 조불흥이 병풍에 잘못 점을 찍어 손권을 놀라게 하고
團扇草書驚內史 평측측평평측측 부채에 쓴 초서는 왕희지를 놀라게 할 정도이다
(상성 紙韻)

<제3단>
故園高枕度三春 측평평측측평평 고향에 돌아가 편히 쉬며 삼개월을 보내는데
永日垂帷絶四鄰 측측평평측측평 오랫동안 휘장 내리며 이웃과 왕래하지 않았네
自想蔡邕今已老 측측측평평측측 그대는 채옹처럼 이미 늙었다고 애석해 하며
更將書籍與何人 측평평측측평평 가지고 있는 책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가
(평성 眞韻)

전체 12구가 칠언 4구의 3개 단락으로 분단하면서 수구를 압운하여 압운이 정제하고 평측운을 교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형적인 신식고풍에 해당한다. 각 단락의 평측 배치 격식을 살펴 보면 우선 제1단 '측평평측측측평'의 구에서 제6자가 요자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율구에 해당한다. 제2단 '평측측평평측측'의 배치가 本句自救에 해당하여 율구로 간주하니 전체 근체 격률에 따르고 있다. 제3단은 2개의 '측평평측측평평'의 배치가 역시 본구자구에 해

40) 진철민, 앞의 책 198쪽 참조

www.kci.go.kr

당하여 근체 격률에 따르고 있다.

이 시는 작자가 시제에서 우인 장인이 詩, 易卜, 丹靑, 草隸의 재능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3개의 분단으로 나누어 하나씩 서술하는 정립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제1단은 장인이 점복과 시가에 뛰어나다는 점을, 제2단은 단청에 뛰어나고 왕희지를 능가하는 草隸의 솜씨가 있음을, 제3단은 인재를 알아보는 식견이 있음을 찬미하고 있다. 그리고 분장된 각 단락의 처음 2구는 세속을 등진채 은거하며 유유자적 하는 장인을 묘사하고 나서 나머지 2구에 고사를 동원하여 우인을 비유하는 비흥의 수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앞선 <老將行>에서 모든 단락의 마지막 2구에 고사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법이라고 하겠다.

2.3 至德, 乾元, 上元 時期(756-761)

이 기간은 작자가 안록산의 난리로 옥고를 치루고 사면되어 복직하게 된 756년을 기점으로 한다. 이후 758년 다시 복관되어 太子中允, 太子中庶子, 中書舍人, 給事中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760년 다시 尙書右丞으로 전임하였다가 上元 二年(761)에 사망할 때 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제3기로 잡으니 일명 참회와 속죄의 기간으로 간주한다. [41] 한편 이 보다 앞선 기간인 天寶下(751-755)는 작자가 모친상을 당한 것을 계기로 하여 주로 망천장에 은거하면서 특별한 출사나 외유, 종군 등의 정치적 변화가 없었던 관계로 칠언가행체 형식의 작품이 한 수도 전하지 않는다.

왕유가 안록산의 난리로 옥고를 치루고 사면되어 756년에 복직하였다가 761년에 사망할 때 까지의 기간에 지은 칠언가행시로 <同崔傅答賢弟>시 한 수가 전한다. 이 시에는 永王 璘이 대규모 병사를 동원하여 동쪽으로 순행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작자가 乾元 元年(758)년 봄에 사면을 받고 관직에 복귀한 후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42]

41) 진철민, 앞의 책 1359-1363 참조

www.kci.go.kr

<제1단 개두>
洛陽才子姑蘇客 측평평측평평측 그대들 낙양의 재자인데 고소에서 나그네 되어
桂苑殊非故鄕陌 측측평평측평측 계수나무 정원은 고향의 길과는 자못 다르다네
九江楓樹幾回靑 측평평측측평평 구강의 단풍 나무 몇 번을 푸르렀다가 변했는가
一片揚州五湖白 측측평평측평측 양주 일대의 오호는 꽃으로 하얗구나
(입성 陌韻)

<제2단 본문1-서사>
揚州時有下江兵 평평평측측평평 양주에는 한 때 강릉의 군대가 있었고
蘭陵鎭前吹笛聲 평평측평평측평 난릉진에는 군대가 주둔하여 피리를 불었다
夜火人歸富春郭 측측평평측평측 전쟁을 피해 밤에 불 밝히고 富春縣으로 몰려들었고
秋風鶴唳石頭城 평평측측측평평 가을바람 불고 학이 우니 석두성은 두려움에 떨었다네
(평성 庚韻)

<제3단 본문2 -서사>
周郎陸弟爲儔侶 평평측측평평측 주유와 육운과 같은 그대 두 사람 좋은 벗이 되어
對舞前溪歌白紵 측측평평평측측 병란 가운데 前溪歌에 춤을 추고 白紵曲을 노래하네
曲几書留小史家 측측평평측측평 평범한 관리의 집 곡궤에 왕희지의 글씨를 남기고
草堂棋賭山陰墅 측평평측평평측 산음의 농막 초당에 앉아 태연히 바둑을 두고 있네
(상성 語韻)

<제4단 결미>
衣冠若話外臺臣 평평측측측평평 州部 長官의 자리에 대해 추천을 하라고 한다면
先數夫君席上珍 평측평평측측평 그대 崔傅를 자리에 맞는 인물로 지적하리라
更聞臺閣求三語 측평평측평평측 상서대에서 관리를 구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遙想風流第一人 평측평평측측평 아우인 賢弟가 풍류가 있는 최고의 인물이라 하겠다
(평성 眞韻)

전체 16구가 칠언 4구의 4개의 단락으로 분단하면서 수구를 압운하여 압운이 정제하고 평측운을 교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형적인 신식고풍에 해당한다. 각 단락의 평측 배치 격식을 보면 우선 제1단 2구의 '측평평측평평측'의 구식이 본구자구가 되어 율구에 해당하고, 2구의 '측측평평측평측'의 구식도

42) 앞의 책, 495쪽 참조

www.kci.go.kr

‘측평측’이 본구자구에 해당되어 율구로 간주한다. 제2단은 ‘평평측평평측평’의 구식이 古句가 되고 나머지 3구는 율구에 해당하며, 제3단의 ‘측평평측평평측’과 제4단의 ‘측평평측평평측’의 구식이 본구자구가 되어 전체 모두 율구에 해당한다. 위의 시는 고체시임에도 불구하고 근체 격률의 영향을 받아 압운이 정제하고 평측이 잘 안배되어 있어 왕유의 신식고풍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겠다.

제1단은 개두 부분으로 첫째 구에 ‘洛陽’과 ‘客’이라는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 단락의 시상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제1단 마지막 구에 ‘揚州’는 다음 단락을 이어주는 과맥의 역할을 하여 앞 부분의 시상을 이어 받고 뒤의 시상을 이끌어 준다. 제2단 첫구에 역시 揚州를 배치하여 아우가 체류하고 있는 揚州의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정을 묘사함으로써 제2단의 하부 구조와 결미 부분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 시의 네 개의 단락을 표층구조로 보면 기승전결의 구조로 나눌 수 있고 다시 내용에 따라 심층구조로 분장하면 제1단과 제2단을 하나로 다시 제3단과 제4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제3단은 제2단을 이어 받아 정치적인 격동속에서도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하는 두 사람의 기품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결미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 제3단 첫구에서 이미 東吳의 명장 周瑜와 문재가 뛰어났던 陸雲을 각각 崔傅와 賢弟에 비유하여 복선을 깔아 놓았다. 따라서 제4단에서 첫 2구는 州郡 長官에 임용될 수 있는 美善한 人選으로 최부를 지목하였고, 나머지 2구에서는 조정에 요직에 오를 수 있는 文彩와 風流가 뛰어난 賢弟를 지목하고 있다. 제1단 첫구에서 ‘才子’를 언급하여 시상을 이끌고 제3단 결미 첫구에서 ‘衣冠’으로 이어 받아 조응을 만들어서 전체 4개 단락이 기승전결의 구조를 이루게 하였으니 고체시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시상을 안배하였다.

2.4 未編年 時期

미편년 시는 제작 시기를 정확하게 고증할 수 없는 작품을 의미한다. [43]

www.kci.go.kr

이 시기에 편입되어 있는 가행시로 <苦熱行>, <早春行>, <夷門歌>, <送崔五太守>시가 있는데, 이 가운데 <苦熱行>과 <早春行>시는 오언 가행체 형식이어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그럼 먼저 <夷門歌>시의 형식과 장법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시제인 '夷門'은 전국시대 魏나라 大梁城 東門을 가리키는데, 현재 그 터가 河南省 開封市 성내 동북 끝에 남아 있다.[44] 이 시는 夷門에서 천한 문지기로 있던 侯嬴이 위나라 信陵君의 門客이 되어 趙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다.

<제1단>
七雄雄雌猶未分 측평평평평측평 전국 칠웅의 승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고
攻城殺將何紛紛 평평측측평평평 성을 공략하고 장수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지러운가
秦兵益圍邯鄲急 평평측평평평측 진나라 군사를 더해 한단을 급히 에워싸고
魏王不救平原君 측평측측평평평 위나라 왕은 조나라 평원군을 구하지 않네
(평성 文韻)

<제2단>
公子爲嬴停駟馬 평측측평평측측 신릉군은 侯嬴을 맞이 하기 위해 네필의 수레를 세웠고
執轡愈恭意愈下 측측측평측측측 말고삐를 잡고 더욱 공손하고 마음은 더욱 겸손하였다
亥爲屠肆鼓刀人 측평평측측평평 朱亥는 도살장에서 칼을 놀리는 사람이었고
嬴乃夷門抱關者 평측평평측평측 후영은 이문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었다
(상성 馬韻)

<제3단>
非但慷慨獻良謀 평측평측측평평 후영은 강개하여 좋은 개책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意氣兼將身命酬 측측평평평측평 의기를 겸하여 갖추고 자신의 목숨으로 보답하였다
向風刎頸送公子 측평측측측평측 북쪽을 향해 목을 베어 공자를 보내고자 하는데
七十老翁何所求 측측측평평측평 칠십 노인이 무얼 더 바랄 것이 있겠소
(평성 尤韻)

43) 진철민은 74수를 未編년 시기에 편입하였다.
44) 진철민, 앞의 책 580쪽 참조

www.kci.go.kr

전체 12구가 칠언4구 형식으로 3개의 단락으로 분단되어 있다. 매 단락은 수구를 압운하면서 압운이 정제하며 평운과 측운이 교대로 환운하고 있다. 그럼 매 단락의 평측 배치 격식을 보면 우선 제1단은 2개의 구에서 하삼평이 발생하여 전체 고구에 해당한다. 제2단은 '측측측평측측측'의 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율구에 가깝고, 제3단은 4구가 모두 평측이 맞지 않아 고구에 해당한다.

이 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단계적으로 서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각 단락이 독립된 정립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詠史詩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심사를 기탁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작자는 이 시에서 후영을 주제로 하여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아끼고 극진히 우대했던 신릉군을 찬양함으로써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인정하여 천거해주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자 하였다. 작품의 전개나 장법이 단순하고 격률도 고체시에 가깝고 작시의 의도도 자신의 천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아 관직에 임용되기 이전인 젊은 시절에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역시 제작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送崔五太守>시의 형식과 장법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제1단 개두>
長安廐吏來到門 평평측측평측평 장안의 역참 관리가 문 앞에 와서는
朱文露網動行軒 평평측측측평평 투명한 주렴에 붉은 비단으로 꾸미고 수레를 움직이네
黃花縣西九折阪 평평측평측측측 황화현 서쪽은 구절판처럼 험난하고
玉樹宮南五丈原 측측평평측측평 옥수궁 남쪽에는 오장원이 있구나
(평성 元韻)

<제2단 본문 - 서사>
褒斜谷中不容轖 평평측평측평측 포사곡은 좁아서 수레가 지나가기 어렵고
唯有白雲當露冕 평측측평평측측 오직 흰구름만이 면류관을 가리는구나
子午山裏杜鵑啼 측측평측측평평 자오곡 산에서는 두견새가 울고
嘉陵水頭行客飯 평평측평평측측 가릉강 상류에서 나그네들 식사하네
(상성 銑韻, 측성 願韻)
劍門忽斷蜀川開 측평측측측평평 깍아지른 검문을 나서니 촉천이 넓게 열리고

www.kci.go.kr

萬井雙流滿眼來 측측평평측측평 수많은 샘물 두 갈래 흘러서 눈 가득히 내려오네
霧中遠樹刀州出 측평측측평평측 안개 속에 멀리 나무 사이로 촉주가 드러나고
天際澄江巴字回 평측평평평측평 하늘가 맑은 강은 구불구불 흘러가네

(평성 灰韻)

<제3단 결미>

使君年紀三十餘 측평평측평측평 그대는 나이가 서른 남짓한데
少年白晳專城居 측평측측평평평 젊고 결백하여 태수가 되었네
欲持畫省郎官筆 측평측측평평측 상서성 낭관의 붓을 들고서
回與臨邛父老書 평측평평측측평 임공의 어르신 들에게 선정의 글을 올리고자 하네

(평성 漁韻)

전체 16구가 칠언 4구의 형식으로 4개 단락으로 분단되어 있다. 매 단락은 수구를 압운하면서 정제하게 압운하였고 단락 간에는 평운과 측운이 교대로 환운하다가 마지막 단락에서만 평성끼리 환운하였다. 그럼 각 단락의 평측 배치 격식을 보면 우선 제1단은 '평평측평측측측'의 구식이 고구에 해당하며 하삼측이 발생하였다. 제2단은 대부분 고구에 해당하며, 제3단은 '평측평평평측평'에서 제5자에서 拗救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율구에 해당한다. 마지막 제4단은 '측평측측평평평'에서 하삼평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율구에 가깝다. 이 시는 고체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단락이 정교하게 대장을 이루면서 엄정하고 공교하여 마치 한편의 근체 장편 배율을 보는 것 같다.

이 작품은 내용상 개두, 본문, 결미의 3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제1단 개두 부분 처음 2구는 崔五 태수가 장안을 떠나 출사하는 장면을 언급하여 전체 시의 시상을 이끌고 있다. 제1단의 나머지 2구는 제2단 본문 첫 구를 이어주는 과맥 부분으로 제2단의 본문과 시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제1단에서 장안을 출발하여 외곽에 도착하였고, 제2단은 장안을 벗어나 진령 산맥의 포사곡과 자오곡을 넘고, 제3단은 검문을 지나 멀리 촉땅이 바라 보이는 지역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제3단은 결미 부분으로 시상이 연결되거나 과맥의 고리도 없이 갑자기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본문 부분의 여정을 따라 익주에 도착한 최오 태수가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선정을 베풀

www.kci.go.kr

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시상을 마무리 하고 있다. 고체시는 근체시와 달리 자유로움을 추구하여 시상 배치가 정제할 필요가 없는데, 이 시는 시상을 조리있게 배치하였고 대장 수법이 공교하며 평측이나 압운도 근체시에 가까워 두보 고체시의 장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 45)

2.5. 歌行詩 영향 관계 규명

왕유의 고체시(가행시)는 전형적으로 初唐體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개원상 시기 청년기에 구직활동을 하던 기간 동안에 지은 작품들은 초당체의 화려한 시풍과 형식을 모방하여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초당체는 初唐四傑이 재야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문재를 드러내고자 하여 장편의 巨作에 다양한 풍격을 시험하였던 것으로 작시의 의도가 같다고 볼 수 있다. 초당사걸은 근체시 형식 확립 시기에 활동하면서 칠언 고체시에 주목하여 환운의 방법으로 편폭을 대폭 늘임과 동시에 근체의 각종 수법과 격률을 접목하였다.

이러한 초당체에 대해 南宋 嚴羽는『滄浪詩話』에서 唐初體란 당나라 초기에 陳隋의 文體를 그대로 因襲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明代에 이르러 唐初體를 '初唐體'라고 개칭하게 되었고, 明代 이후에 초당체는 바로 四傑의 歌行體를 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46) 이처럼 사걸의 작품이 전통적으로 제량의 여풍을 이어받았다고 평가하지만 가행체에 보이는 風格과 氣勢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미 새로운 풍격을 형성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趙麗萍은「王維七言歌行初探」에서 사걸의 가행시에 대해 "鋪張宏麗, 縱橫雄健, 以賦爲詩, 多長篇巨制."(크고 아름다운 필체를 사용하여 힘차고 굳센 기상을 펼쳐 나갔으며 부로써 시를 지어 내었고 장편의 거작들이 많았다.)라고 평가한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듯 하다. 47)

45) 이영주, 앞의 책 250쪽 참조
46) 安炳國,『唐詩史硏究』62쪽 참조

www.kci.go.kr

따라서 이러한 신식고풍은 盛唐 때에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齊梁 및 初唐 시기에 이미 그 형식을 갖추게 되었는데, 특히 칠언시는 칠언율시로 변하기 전에 이미 신식고풍(가행시)으로 변하였다. 48) 이러한 초당체의 가행시는 盧照隣과 駱賓王의 작품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데, 대부분 편폭이 긴 대작에 속한다. 가령 낙빈왕의 <帝京篇>은 98구, <疇昔篇>은 200구, <從軍中行路難>은 69구, <代女道士王靈妃贈道士李榮>은 100구, <艷情代郭氏答盧照鄰>은 64구로 이루어져 있다. 노조린의 경우는 <長安古意>가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총 68구의 대작이다. 49) 이러한 장편의 거작들은 대부분 오언과 칠언의 잡언체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代女道士王靈妃贈道士李榮>, <艷情代郭氏答盧照鄰>, <長安古意> 시만이 순수한 칠언 장편 고체시에 해당한다.

왕유는 형식면에서 초당체의 가행을 계승하면서 잡언체 형식에서 벗어나 완전한 칠언체로 정착시키면서 편폭도 16구 내외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칠언 4구 마다 분장하면서 평운과 측운을 교대로 사용하였고 근체시 창작의 고수답게 압운과 평측 배치는 완전히 근체시 표준 격률을 따르게 하였다. 왕유의 고체시는 이처럼 형식 뿐만 아니라 내용과 작품의 구성면에서도 초당 가행시를 모방하고 계승한 흔적이 여러 군데 보인다. 특히 그가 청년기 습작 시절에 지었던 <洛陽女兒行>의 전반부에서 낙양여아와 낭군의 생활 모습, 당시 낙양 번화가에 대한 묘사와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은 초당 <長安古意>와 <帝京篇>에서 漢代의 장안을 배경으로 하여 당시 귀족들의 사치와 번화한 모습을 묘사한 부분과 내용과 풍격이 흡사하다. 이 작품 외에도 <同比部楊員外十五夜遊有懷靜者季>시는 초당체인 오언과 칠언의 잡언 형식을 채택하였고 중간 단락에 정월 대보름 밤에 장안의 연등 행사를 구경하면서 장안의 화려함과 귀족들의 호사스러움을 동일한 풍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왕유의 고체시는 후반부에 자신의 처지를 기탁하는 비유의 방법을 동원하

47) 趙麗萍,「王維七言歌行初探」(晉東南師範專科學校學報, 2003, 8) 37쪽
48) 왕력, 앞의 책 p.356
49) 安炳國,「駱賓王 長篇歌行詩 形式 分析」192쪽 참조

www.kci.go.kr

는 구조를 규격화하여 사용하였다. 가령 <낙양여아행> 마지막 2구에서 아름다운 여인 西施의 젊은 시절의 불우함을 묘사한 것, <노장행>에서 유협 소년과 老將이 愛國報恩 했음에도 버려진 것, <농두음>에서 서역 개척에 공을 세웠지만 버림 받은 蘇武 등의 인물은 모두 자신의 회재불우와 연관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러한 구성의 구도는 모두 초당체 노조린과 낙빈왕 가행시의 내용과 구성을 모방한 흔적이 보인다. 가령 <장안고의>에서 마지막 단락에 허망한 쾌락에서 벗어나 외롭게 살아가는 揚雄의 적막한 거처를 묘사한 부분이나 <제경편>에서 마지막 구에서 洛陽의 才子를 자부하고 있는 賈誼를 묘사함으로써 일편을 맺고 있는 것은 모두 異曲同工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50)

3. 結論

왕유의 고체시(가행시)는 全編이 단편의 경우 총 6구, 길어도 32구를 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12구 내지는 16구가 칠언 4구로 3개나 4개 단락으로 분단하면서 평운과 측운을 교대로 사용하고 있다. 평측 배치에 있어서도 일부 고체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체 격률에 합치하여 盛唐 근체시 극성기의 영향을 잠작하게 한다. 특히 그의 생애 후반기라 할 수 있는 2단계 후반과 3단계에 지은 <故人張諲工詩善易卜兼能丹青草隸頃以詩見贈聊獲酬之> 시와 <同崔傅答賢弟>, 비록 미편년 기간에 속하지만 <送崔五太守>시는 왕유의 칠언 고체시를 대표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王力은 이 가운데 <故人張諲工詩善易卜兼能丹青草隸頃以詩見贈聊獲酬之>시에 대해 칠언 4구로 분단하면서 평측 배치가 엄정하여 신식고풍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였다. 51)

왕유의 칠언 고체시는 초당의 가행시에 비해 편폭은 짧지만 다양한 주제와 서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초당 가행시는 주로 장편 巨作으로 賦體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수식을 위주로 하면서 선련 포진의 방법을 동원하여 회재불우의

50) 安炳國,「駱賓王 長篇歌行詩 形式 分析」222쪽 참조
51) 왕력, 앞의 책 360-361 참조

www.kci.go.kr

감개를 기탁하였다. 반면에 왕유는 散句의 구식을 동원하여 送別, 出仕, 邊方, 贈答의 자리에서 혹은 詠史나 詠物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담아내었다. 특히 그가 청년기에 지은 <도원행>시는 도화원기를 저본으로 삼아 산문식 구법으로 정교한 대장을 사용하여 서정시로 개작한 것으로 칠언 고체시를 한차원 끌어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왕유의 고체시는 3개의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시 특징 지을 수 있다. 먼저 제1期인 開元上에 해당하는 청년기의 고체시는 주로 여성과 변새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浮艶하면서 화려한 풍격을 보여주기도 하고 변새시의 경우 시대 상황에 편승하여 힘찬 기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제2期인 開元下에서 天寶上 시기는 관직 재임 기간으로 주로 작자의 실제 종군 체험, 出仕 途上의 감회, 임지에서의 송별이나 증답을 주제로 하면서 청년기의 습작에서 벗어나 다양한 풍격과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변새의 주제는 10구마다 분단하기도 하고, 출사 도상의 작품들은 오언과 칠언의 잡언체 형식을 혼용하기도 하면서 고체시 본연의 자유분방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제3期인 至德, 乾元, 上元 時期의 경우는 칠언 4구의 형식이 3개 내지는 4개의 단락으로 분단하면서 평측운을 교대하는 신식고풍의 형식이 완전히 정착하면서 평측의 배치도 완전히 근체시 격률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전편을 구성함에 있어 고체시에서 꺼리고 금지하는 全對格의 형식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처럼 전편을 대장으로 구성하는 것은 장편 배율에서 즐겨 사용하던 방법으로 근체 격률의 사용과 함께 근체 배율의 대장 수법을 접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www.kci.go.kr

參考文獻

『全唐詩』(北京 中華書局, 1999)
趙殿成 箋注,『王右丞集箋注』(上海古籍出版社, 2005)
陳鐵民 校注,『王維集校注』(中華書局出版社, 1997)
楊文生 編著,『王維詩集箋注』, 四川人民出版社, 2003.
王力,『漢語詩律學』(上海教育出版社, 1957)7
송용준역,『中國詩律學』(서울 소명출판, 2005)
安炳國,『唐詩史硏究』(에피스테메, 2009)
李永朱,『杜詩의 章法과 格律』(明文堂, 2019)
趙麗萍,「王維七言歌行初探」(晉東南師范專科學校學報, 2003)
韓憲臣, 畢寶魁,「王維樂府詩初探」(廣東社會科學, 1991年 第二期)
安然,「論初唐七言古詩的演進」(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李容宰,「王維 詩의 官과 隱 硏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博士學位 論文, 2007
安炳國,「駱賓王長篇歌行詩 形式分析」(中國語文學硏究會, 2020,4)

www.kci.go.kr

Abstract

The Study of Wangwei(王維)'s Seven-character-ancient vers poem

An, Byung Kuk

Wangwei was a Middle-Tang Dynasty Chinese poet, musician, painter and statesman. He was born in 701 and died in 761. He is best known for his quatrains depicting quiet scenes of water and mist. but Anyone little pay attation tothe Seven-character-ancient vers. This article takes 18seven-character-ancient vers poems of Wangwei's whole 150 premodern poems as research objects, and divided into three parts according to the his life time. The first part is young age's Seven-character-ancient vers. The first part's theme mainly consist of a lot of talent, but not appreciated. The second part is serve as an official, especially at the the northwest flank. so mainly express patriotism. and make a contribution. The third part is a work of old age, called as the time of penance and atonement. But only one piece remains. It's main theme is about hiding in the country and recommending a younger brother.

Key Words : Wanwei(王維), Seven-character-ancient vers, poetry of Middle-Tang Dynasty

투 고 일 : 2021. 4. 10. / 심 사 일 : 2021. 4. 15.~ 2021. 5. 15. / 게재확정일 : 2021. 5. 20.

www.kci.go.kr